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4, No. 6, 77-96, December 2013
DOI : dx.org/10.5723/KJCS.2013.34.6.77

www.childkorea.or.kr
pISSN1226-1688
eISSN2234-408X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 관련 변인이 2세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양육방식의 매개적 역할*

The Influences of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Related Factors on Two-year-old Infants' Development :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yles*

김종훈(Jonghoon Kim)[1)]
이지영(Jiyoung Lee)[2)]
성지현(Jihyun Sung)[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self-estee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parenting related factors(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knowledge on infant development), maternal parenting style, and two-year-old infants' development.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1735 mothers and their two-year old infants selected from a sample of the 3rd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conducted in 2010.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to identify the structure and relationships among the various factors. The significance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yle were identified via bootstrapp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maternal parenting style most defini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self-esteem and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구두 발표 논문임.
[1)]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
[2)]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
[3)]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인재개발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ihyun Sung, Dept. of Child Psychology & Education/Human Resource Development,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110-745, Korea
E-mail : sungjh@skku.edu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self-efficacy), parenting related factors(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knowledge on Infant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ir two-year-old infants.

Keywords :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maternal parenting stress), 어머니의 양육지식(mother's knowledge on infant development), 어머니의 양육방식(maternal parenting style), 영아 발달(infant development),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Ⅰ. 서 론

영아기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발달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경험하는 환경은 이후 발달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Snow, 1989; Thompson, 2000). 특히 영아들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간의 기본적 능력과 관련된 기술을 배운다. 때문에 영아기에 다양한 인적·물적 환경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동시기의 영아 발달뿐만 아니라 이후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wang et al., 2008).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 중에서도 영아의 필요와 요구에 반응해주는 부모는 영아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환경으로서 영아 발달에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0~2세 영아의 85.4%가 주로 자녀의 부모에 의해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리나라 영아의 양육실태(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07)를 통해서도 최초의 환경 변인으로서 부모의 중요성이 입증된다. 특히, 부모가 영아를 대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는지는 영아의 발달과 행동 특징의 개인차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예를 들면, 영아 행동에 대해 적절하고 즉시적인 반응을 보이는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방식은 영아-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유지시켜줌으로써 안정애착을 형성하고 탐색욕구를 자극하여 영아 발달을 지원한다고 밝혀졌다(Park, Seo, & Bornstein, 2005).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은 영아의 3세 이후 언어발달을 강하게 예측하며, 자녀의 인지 및 언어발달과 문제해결능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다(Frankel & Bates, 1990; Landry, Smith, Swank, & Miller-Loncar, 2000; Lee, 2006). 일하는 어머니의 경우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절대적인 시간은 적은 편이지만 긍정적이고 일관된 양육방식을 가진 경우, 유아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으며, 발달지연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ong et al., 2009).

반면에, 어머니의 부정적이고 강압적인 양육은 영아의 문제행동, 언어 및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가 통제적이고 지시적인 양육방식 보인 영아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의 영아에 비해 이후 언어발달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Saxon, Colombo, Robinson, & Frick, 2000). Kim(201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강제적인 양육방식을 가진 경우 영아의 인지발달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

니의 부정적이고 강제적인 통제는 유아의 외현화된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Brenner & Fox, 1998; Carlson, 1998).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영아의 성장에 미치는 어머니의 특정한 행동들이 포함되는 활동들로 양육스타일, 양육행동, 양육태도라고도 일컬어지며(Min & Moon, 2013), 영아의 정서, 행동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아왔다.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어머니의 내적 요인인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어머니의 양육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어져 왔다(Abidin, 1992; Belsky, 1984; Kim & Park, 2008).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영아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들로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우울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Cohen과 Willis(1985)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방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모의 내적 요인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제안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Rosenberg, 1979).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자녀에 대한 해석과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Shin & Hwang, 2008).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으로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기대를 의미한다(Bandura, 1986).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문제 상황에서 포기하게 될 경우가 더 많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힘든 자녀 양육 환경에서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배경을 두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가 양육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Teti & Gelfand, 1991)과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과 관련된 양육방식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모 스스로의 판단(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으로,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Choi, 2006; Lee, 2009; Moon, 2005).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자녀 양육방식을 직접적으로 예측해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져(Kim & Seo, 2012; Lee, 2009),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의 바탕이 되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또한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 어머니의 우울도 양육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 어머니가 높은 우울을 보이는 경우 부모 역할에 많은 어려움을 지각하고 유아에 대한 정서적 관여가 줄어들게 되며(Kim & Lee, 2007), 자녀에게 보다 적대적이고 짜증을 많이 내고 비판적이고 강압적이며, 엄격하거나 비 일관적인 양육

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owney & Coyne, 1990; Leung & Slep, 2006). 특히 어머니의 산전, 산후 우울은 양육방식을 통해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뿐더러 영아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Misri et al., 2010).

이러한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과 더불어 어머니가 영아를 양육하면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을 유발하는 양육스트레스(Abidin, 1992)와 영아의 발달 지원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인 양육지식(Yoon & Cho, 2004)은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영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졌다. 어머니는 자녀의 출생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변화, 가족 구조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및 역할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Chun & Ok, 2010).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영아의 문제행동이나 부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9).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보여 영아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 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애정적·합리적 행동을 많이 보여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ek, 2007; Evans, Boxhill, & Pinkava, 2008; Huth-Bocks & Hughes, 2008; Kim & Moon, 2005; Park, 2004).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가 성장하는 동안 지속되는 속성이 있어서 유아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Crinic, Gaze, & Hoffman, 2005), 유아의 대인적응성, 인기도, 지도력과 같은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Kim & Do, 2004).

또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영아 발달이나 양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문제나 불안정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지식이 결핍되고 부모역할이 날로 미숙해져 영아의 양육 환경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Lee(2009)의 연구에서는 정확한 양육지식을 지닌 어머니는 긍정적인 사회적 양육방식을 나타내며, 부정확한 양육지식을 지닌 어머니는 영아에게 제한적인 양육방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저체중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영아 발달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영아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베일리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Dichtelmiller et al., 1992). 이와 더불어, Seo(2006)의 연구에서는 영아 발달에 대한 지식수준이 가장 높은 어머니 집단이 가장 낮은 어머니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으며, 어머니가 영아의 발달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영아는 더 높은 발달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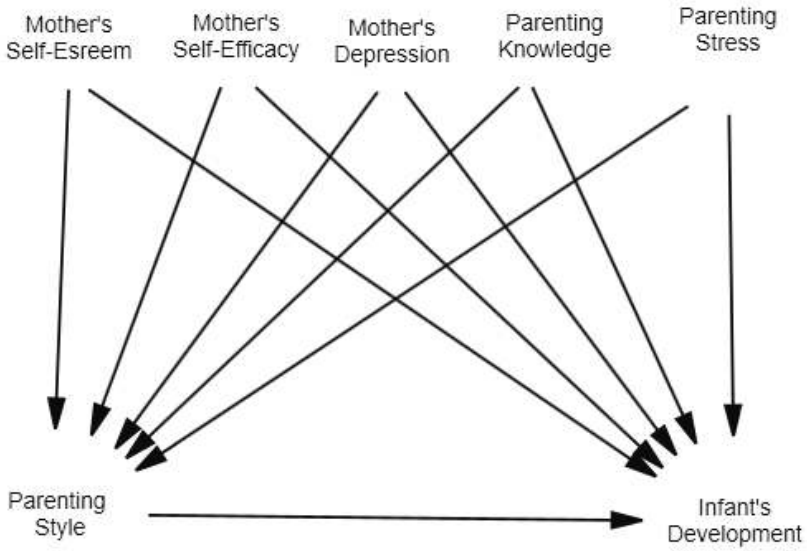
따라서 정확한 양육 지식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현실적인 발달 기대를 하는 경우에 자녀는 발달에 적합한 환경과 자극을 제공받아 긍정적인 발달이 촉진될 수도 있고, 부모가 부정확한 양육 지식을 근거로 자녀의 발달에 대해 비현실적 기대를 하게 되면 부모는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자녀는 부모의 비효과적인 양육방식으로 정상적인 발달에 이르기 어려울 수도 있다(Huang, Caughy, Genevro & Miller, 2005; Yang & Joe, 200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지식은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영아

발달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양육스트레스의 경우는 영아기 이후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Min & Moon, 2013), 양육 지식은 일반적으로 실태 파악이나 어머니의 발달단계와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지식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Hong & Kim, 2008; Lee & Lee, 2010; Shim, Byon, Park, Park & Kim, 2007)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지식이 양육방식과 영아 발달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본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지식을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함께 양육 방식과 영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한국아동패널의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들에서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 즉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이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각 변인마다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문항합산(item-parceling)의 내적일관성접근법(internal consistency approach)을 이용하여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라는 한 개의 잠재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실시되었다(Lim, Lee, & Choi, 2011a; Lim, Lee, & Choi, 2011b; Lim, Choi, & Choi,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관련변인 각각이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변인간의 관계와 영향력의 크기, 영아 발달에 미치는 경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구축한 한국아동패널연구(PSKC)의 3차년도(2010)자료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 관련 변인과 영아 발달에



<Figure 1> Theoretical model on infants' development

대한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 관련 변인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경로와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영아의 발달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영아 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중요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영아 발달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영아의 원만하고 안정적인 발달에 필요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과 양육 관련변인들(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 지식), 양육방식은 2세 영아의 발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과 양육 관련 변인(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은 양육방식과 영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과 양육관련변인들(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은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과 양육 관련 변인들(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은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매개로 영아의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구축한 한국아동패널연구(PSKC)의 3차년도(2010년) 일반조사에 참여한 어머니와 영아 17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2세 영아는 남아 880명(50.7%), 여아 855명(49.3%)이었다. 영아들의 출생순위는 첫째아가 807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둘째아가 732명(42.2%), 셋째아 이상 196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평균 월령은 25.86개월(*SD* = 1.28)로 나타났으며, 월령 범위는 24개월에서 31개월로 다양한 월령분포를 나타내었으나, 26개월 영아가 547명(31.5%)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2.92세(*SD* = 3.54)로, 30～39세가 7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29세가 16.6%로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 643명(3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고졸 이하 481명(27.8%), 전문대졸 407명(23.5%), 대학원 졸 85명(4.9%) 순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비취업모가 1156명(66.6%)으로 취업모 578명(33.3%)보다 많았다. 가구형태는 부부와 자녀가 이루어진 가구가 88.5%(153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은 579.97만원으로 나타났고, 이 중 근로사업소득은 340.09만원, 전체자녀에 대한 지출은 172.94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변인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s features

Variable	Measures	Frequency(%)
Sex of infant	Male	880(50.7)
	Female	855(49.3)
Birth order of infant	First	807(46.5)
	Second	732(42.2)
	Over third	196(11.3)
Months of infant	24 month	248(14.3)
	25 month	469(27.0)
	26 month	547(31.5)
	27 month	301(17.3)
	28 month	110(6.3)
	29 month	44(2.5)
	30 month	14(0.8)
	31 month	2(0.1)
Mothers' age	20～29 years	289(16.6)
	30～39 years	1367(79.6)
	40～49 years	65(3.8)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ess	481(27.8)
	Vocational college	407(23.5)
	College	643(37.1)
	Graduate school and above	85(4.9)
Mothers' working status	Working	578(33.3)
	Non-working	1156(66.6)
Household forms	Couple + children	1535(88.5)
	Grandparents + couple + children	145(8.4)
	Couple + children + relation	15(0.9)
	Grandparents + couple + children + relation	29(1.7)
	Missing	11(0.6)
Household characteristics		Won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5,799,701
Earned income		3,400,945
Expenditure on infants		1,729,478

2. 연구도구

1)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

(1) 우울

미국 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간편형으로 제작된 'K6'를 사용하였다(Kessler et. al., 2002). 문항내용은 '지난 30일간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분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30일간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등 총 6문항으로, '전혀 안 느낌(1점)'부터 '항상 느낌(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 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Rosenberg(1986)가 개발한 'Self-Esteem'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긍정적인 진술 5문항과 부정적 진술 5문항으로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코딩 문항으로 재점수화 하였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 중에 평정하는 4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또한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들을 역으로 채점 한 후 합계하여,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55로 나타났다.

(3) 자기효능감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Child Development Supplement(PSID-CDS)에서 사용한 Pearlin Self-Efficacy Scale(Pearlin, Lieberman, Menagham, & Mullan, 1981)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살면서 때때로 뭔가에 휘둘리는 느낌을 받는다.',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 등의 총 4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2) 양육지식

MacPhee(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KIDI)'를 사용하였다. KIDI는 4가지 하위영역으로 '양육행동' 8문항, '발달원리' 15문항, '건강과 안전' 9문항, '발달 규준 및 지표' 26문항의 총 5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원 도구는 패널 조사에서 사용하기에 문항 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패널조사시 '발달원리' 영역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1차적으로 '발달원리' 영역의 15문항이 선정되었으며, MacPhee의 1981년 17개 문항과 2002년 15개 문항을 비교하여 두 개의 질문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1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응답이 옳을 경우 1점, 옳지 않을 경우 0점을 부과하여 모든 응답 내용을 점수화하였다. 총 문항 중 정답 수의 비율을 산출하여 양육지식점수로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영아의 발달에 대해 올바른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양육스트레스

Kim과 Kang(1997)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만을 발췌한

아동패널 도구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2문항을 제외한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4) 양육방식

Bornstein 외(1996)가 개발한 양육방식(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 PSQ)도구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연구(PSKC)의 3차년도에 사용된 PSQ는 1차, 2차년도에 패널아동의 해당 연령에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였던 3개의 문항을 3차년도에 포함하여 총 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척도의 문항은 '나는 내 아이가 놀이집단이나 모임 등을 통하여 같은 또래친구들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 '나는 내 아이에게 말을 하거나 대화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낸다' 등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5) 영아의 발달(K-ASQ)

Korea-Age & Stage Questionnaire(K-ASQ)는 미국의 Oregon 대학에서 개발된 Age & Stage Questionnaire(ASQ)를 Heo, Squires, Lee와 Lee (2006)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도구이다. 하위영역은 의사소통(6문항), 대근육 운동(6문항), 소근육 운동(6문항), 문제해결(6문항), 개인-사회성(6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화는 부모가 유아가 행동을 수행할 때에는 '예(10점)', 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는 '가끔(5점)', 아직 행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아니오(0점)'로 평정하였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각 영역별로 0점~60점이다. 한국아동패널연구(PSKC) 3차년도 조사에서는 해당 연령을 고려하여 22, 24, 27, 30 개월에 해당하는 검사가 사용되었다.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의사소통 .69, 대근육 운동 .51, 소근육 운동 .54, 문제해결 .44, 개인-사회성 .64, 총 .8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전체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변인들 간의 구조 및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매개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유의도 .001에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Ⅲ. 결과분석

1.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latent variables (*N* = 1735)

Variables	1	2	3	4	5	6	7
1. Depression	1						
2. Mother's self-efficacy	.556***	1					
3. Mother's self-esteem	-.298***	-.220**	1				
4. Parenting knowledge	-.060**	-.074**	.090**	1			
5. Parenting stress	.427***	.383***	-.251***	-.070**	1		
6. Parenting style	-.320***	-.316***	298***	.091**	-.403***	1	
7. Infant's development	-.075**	-.065**	.070**	.046	-.105***	.140***	1
M	1.97	2.32	1.97	9.18	2.79	3.79	9.08
SD	.69	.71	.30	2.17	.62	.51	.97

*p < .05. **p < .01. ***p < .001.

는 -.40～.56을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은 아니었다.

2. 구조모형분석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방식이 유아의 발달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Table 3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구조모형적합도 지수는 x^2 = 84.306, df = 29, p = .000), TLI = .974, CFI = .986, SRMR = .022, RMSEA = .030으로 나타나 Hu와 Bentler(1999)의 적합도 권장지수에 따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방식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와 최종모형은 Table 4, Figure 2와 같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β = -.095, p < .001)과 자아존중감(β = .159, p < .001), 어머니의 양육지식(β = .046, p < .05) 및 양육스트레스(β = -.352, p < .001)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β = .113,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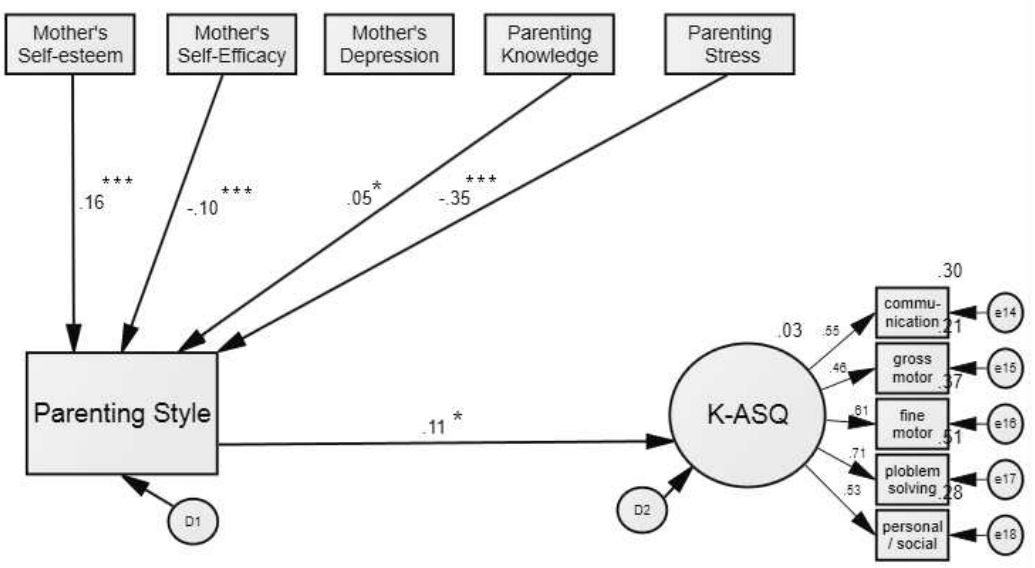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방식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Table 3> Model fit indexe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x^2	df	p	TLI	CFI	SRMR	RMSEA
84.306	29	.000	.974	.986	.022	.030

<Table 4> Path estimates among variables in the measurement model

Path	*B*	*β*	*S.E.*	*t*	*p*
Depression → Parenting style	-.026	-.036	.018	-1.485	.138
Mother's self-efficacy → Parenting style	-.068	-.095	.017	-4.043	.000
Mother's self-esteem → Parenting style	.270	.159	.034	7.894	.000
Parenting knowledge → Parenting style	.011	.046	.004	2.410	.016
Parenting stress → Parenting style	-.287	-.352	.019	-15.395	.000
Depression → Infant's development	-.005	-.004	.047	-.109	.913
Mother's self-efficacy → Infant's development	.004	.003	.045	.100	.920
Mother's self-esteem → Infant's development	.049	.014	.092	.529	.599
Parenting knowledge → Infant's development	.014	.031	.012	1.213	.225
Parenting stress → Infant's development	-.095	-.059	.052	-1.826	.068
Parenting style → Infant's development	.223	.113	.059	3.794	.000



*p < .05. ***p < .001.

<Figure 2> Verification on the measurement model of infants' development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에서 변인들 간의 간접효과와 총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첫째,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어머니의 자기효능감(β = -.011, p < .05), 자아존중감(β = .018, p < .05), 양육지식(β = .005, p < .05), 양육스트레스(β = -.040, p < .05)는 양육방식을 통해 영아의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통해 유아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경로를 확인하였다. 즉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는 영아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통하여 영아에 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상대적으로 영향력(total effects)을 살펴보면, 영아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양육방식(β = .113, p < .05), 다음으로는 양육스트레스(β = -.099, p < .0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Table 5에서 내생변인을 설명하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measurement model predicting infant development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R^2
Depression → Parenting style	-.036	-	-.036	
Mother's self-efficacy → Parenting style	-.095	-	-.095***	
Mother's self-esteem → Parenting style	.159	-	.159***	.256
Parenting knowledge → Parenting style	.046	-	.046*	
Parenting stress → Parenting style	-.352	-	-.352***	
Depression → Infants' development	-.004	-.004	-.008	
Mother's self-efficacy → Infants' development	.003	-.011*	-.008	
Mother's self-esteem → Infants' development	.014	.018*	.032	
Parenting knowledge → Infants' development	.031	.005*	.036	.026
Parenting stress → Infants' development	-.059	-.040*	-.099*	
Parenting style → Infants' development	.113	-	.113*	

*p < .05. ***p < .001.

는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보면,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는 양육방식을 25.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방식은 2세 영아 발달의 분산을 2.6%을 설명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적 연구인『한국아동패널연구(PSKC)의 3차년도(2010년)』에 참여한 어머니와 영아 1735명을 대상으로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과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영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관련 변인들은 영아의 발달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애정적이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방식과 높은 관계가 있었다는 Lim, Choi와 Choi(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양육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양육방식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연구들(Huang et al., 2005; Lee, 2009)과도 같은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양육지식 순 이었다. 즉 어머니가 건강한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보다 양육하는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느낄수록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Abidin(1992)이 제시한 스트레스 모형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이 어머니의 자녀 양육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예측하게 한다(Abidin, 1990; Ahn, 2002; Park, 1995).

한편, 어머니의 우울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모형에서 다른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방식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여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Downey & Coyne, 1990; Kim & Lee, 2007; Leung & Slep, 2006; 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과는 다르다. 하지만 우울감을 느끼는 어머니도 자녀의 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온정적인 양육을 하며 유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연구(Lee, 2013; Moon & Oh, 1995)를 통하여,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Weaver, Shaw, Dishion, & Wilson, 2008)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그 관계를 매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자녀가 2세에서 4세가 되는 2년 동안에 걸쳐 보고된 어머니의 낮은 양육효

능감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였고, 유아가 3세일 때 측정된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더욱 낮추는 역할을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들과 양육 관련변인들은 그 관계들과 영향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살펴보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다룸으로써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우울 변인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변인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 양육관련변인(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과 양육방식이 영아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양육관련변인인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방식을 매개로 영아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예측하는 중요 요인(Shin & Hwang, 2008)이며,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역시 어머니가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질수록 힘든 양육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보이고 자녀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경우 자녀에게 애정이 담긴 온정적인 접촉행동을 자주하게 되고 이러한 신체접촉이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Kim & Kwak, 2004)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양육지식 또한 선행연구들(Altman-Klein & Cordell, 1987; Hunt & Paraskewopulous, 1990; Yoon & Cho, 2004)과 일치하는 결과로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은 어머니들로 하여금 적절한 양육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실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궁극적으로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 관련 변인들이 영아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완전 매개하여 영아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 양육관련변인들(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과 양육방식은 영아 발달의 분산의 2.6%로 설명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발달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나 양육관련 특성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 영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과정(Hwang et al., 2008)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Rothbaum과 Weisz(1994)가 제안한 부모의 양육과 아동의 특성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형태이며 이러한 상호 호혜적 관계가 누적되어 아동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누적적 상호 호혜 모델'을 가지고 자료를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영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서

는 어머니의 양육 방식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만 2세 영아들은 호기심이 왕성하여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자기주장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Hwang et al., 2008), 어머니는 영아의 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일관된 양육방식으로 영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영아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머니 자신부터 건강한 심리적 특성을 지녀야 한다. 어머니의 심리적 자원이 양육 스트레스의 강력한 예측변인이라고 했던 연구들(Abidin, 1992; Lazarus & Folkman, 1984; Um, 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머니가 건강한 심리적 특성을 지니게 되면 양육 스트레스도 덜게 되어 양육방식과 영아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이다. 또한 자녀를 가진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주변인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양육과 관련한 지식을 얻는 상황(Min & Moon, 2013)에서 전문적이고 정확한 지식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과 양육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나 전달 체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양육과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담긴 서적들이 부모들에게 홍보되거나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현실적인 발달 기대를 하고 자녀에게 적합한 환경과 자극을 제공하여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한국아동패널연구(PSKC)의 3차년도(2010년)』에 참여한 어머니와 만 2세 영아기의 자녀를 대상으로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 양육 관련 변인이 양육방식을 매개하여 영아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혀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 관련 변인, 양육방식이 영아가 발달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계가 있는 변인들인지, 그 관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계속 누적되는 패널 자료를 이용한 종단 연구 설계를 통해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델에서의 변인들 간의 관계가 이후 연령 집단에서도 유사한 관계가 나타나는지, 상호작용이나 다른 매개 역할은 없는지, 변인들 간의 관계가 지속적인지에 대해 살펴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양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직접 자신의 양육방식을 보고한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어머니가 함께 보고한 심리적 특성이나 다른 양육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추후에 양육방식이나 양육행동을 어머니가 유아와 상호작용하고 양육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하여 살펴보면 기존 연구의 결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아동패널 대상 어머니는 취업 상태를 기준으로 취업모(33.3%)와 비취업모(66.6%)으로 나눌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인 특성과 양육 관련 변인 외에도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탐색하여 긍정적인 영아 발달을 이끄는 방안들이 더욱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대상의 월 소득과 학력수준의 분포가 대부분 중산층을 대표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집단에까지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 관련 변인은 중산층 어머니 집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관계들에 있어 양육방식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 영아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데 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Ahn, J. Y., & Park, S. Y. (2002).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1), 53-68.

Altman-Klein, H., & Cordell, A. (1987). The adolescent as mother early risk identific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7-58.

Baek, Y. S. (2007). The effect stress and guilt of mothers in raising children have in their attitude of raisi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Brenner, V., & Fox, R. A. (1998). Parental discipline and behavior problems in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9*, 251-256.

Calson, E. A. (1998).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attachment disorganization/ disorientation. *Child Development, 69*, 1107-1128.

Choi, H. S. (2006). The mediational role of kore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 The effects of parenting related variables on child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11), 79-89.

Chun, H. Y., & Ok, K. W. (2010). The effect of maternity and child rearing system variables on postpartum depression of infant's mothers. *Annual Conference of Panal Study on Korean Children Book* (pp. 59-82) Seoul. Korea.

Cohen, S., & Willis, T.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Coleman, P. K., Trent, A., Bryan, S., King, B., Rogers, N., & Nazir, M. (2002). Parenting behavior, mothers' self-efficacy beliefs, and toddler performance on the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2(2), 123-140.

Crinic, K. A., Gaze, C., & Hoffman, C. (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117-132.

Dichtelmiller, M., Meisels, S., Plunkett, J., & Bozynski, M. (1992).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knowledge to the development of extremely low birth weight infant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6*(3), 210-220.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1), 574-595.

Evans, G. W., Boxhill, L., & Pinkava, M. (2008). Poverty and maternal responsiveness : The role of maternal stress and social resourc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2*, 232-237.

Frankel, K. A., & Bates, J. E. (1990). Mother-toddler problem-solving. antecedents in attachment, home behavior, and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61*(3), 810-819.

Heo, K. H., Squires, J., Lee, S. Y., & Lee, J. S. (2006). *KASQ : Korean ages and stages questionnaires/ parent-completed development screening tool.* Seoul :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Hong, S. O., & Kim, S. H. (2008).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knowledge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according to the mother's background.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6), 55-71.

Hu, L. T.,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Huang, K. Y., Caughy, M. O., Genevro, J. L., & Miller, T. L. (2005). Maternal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and quality parenting among white, african-american and hispanic mothers.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26*(2), 149-170.

Hunt, J. M., & Paraskewopulous, J. (1990). Children's psychological development as a function of the inaccuracy of their mothers' knowledge of their abiliti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6*, 252-298.

Hurth-Bocks, A. C., & Hughes, H. M. (2008).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amilies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4), 243-251.

Hwang, H. S., Lee, H. Y., Lee, K. H., Lee, J. H., Shin, K. S., Yun, K. M., & Hwang, S. Y. (2008).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Seoul : Hakjisa.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L. T.,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Kim, H. M., & Do, H. (2004).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279-298.

Kim, H. N., & Seo, S. J. (2012).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attachment and infant development :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307-329.

Kim, J. R., & Lee, E. H. (2007). The influence of middle-aged women's insecure attachments on their depression and the behavior problems in their children :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marital conflic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2), 297-319.

Kim, K. H., & Kang, H. K. (1997). Research :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5), 141-150.

Kim, M. K. (2010). The effects of the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on toddler's development and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Kim, M. S., & Moon, H. J. (2005).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8), 25-35.

Kim, M., & Park, H. (2008).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tress and performance on the K-BSID2 :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1), 243-255.

Kim, S. C., & Kwak, K. J. (2004). The difference in touch patterns of infants at 6 months on the mothers's level of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xiety, feeling of touch and self-concept.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3), 1-23.

Landry, S. H., Smith, K. E., Swank, P. R., & Miller-Loncar, C. L. (2000). Early maternal and child influences on children's later independent cognitive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1*(2), 358-375.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Lee, H. M. (2006). The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yle and sensitivity on infant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Lee, J. Y. (2009).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yle of mothers with infants :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5), 35-48.

Lee, J. Y., & Lee, S. H. (2010). The acquisition of parent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levels of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4), 179-197.

Lee, K. H. (2009). Influence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on infant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Leung, D. W., Slep, A. M. S. (2006). Predicting inept discipline : The role of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anger, and attribu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3), 524-534.

Lim, H. J., Choi, H. J., & Choi, S. N. (2012). The effect of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2), 83-106.

Lim, H. J., Lee, D. K., & Choi, H. J. (2011a). Using a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to determine how a couple's characteristics, childbirth-related emotions and a mother's emotional characteristics affect planning for second childbirth.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5), 183-202.

Lim, H. J., Lee, D. K., & Choi, H. J. (2011b). An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the variables of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mother's emotional characteristics on planning for second childbirth.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6), 167-189.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5), 561-592.

MacPhee, D. (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 Survey of child care experience & manual (2nd ed.). Unpublished manuscript, Colorado State University.

Min, H. S., & Moon, Y. K. (2013). Relationship among mother's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maternal parenting stress,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1), 43-5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07). *Child care statistic.* Seoul : Child Care Support Team.

Misri, S. M., Kendrick, K., Oberlander, T. F., Norris, S., Tomfohr, L., Zhang, H., & Grunau, R. E. (2010). Antenatal depression and anxiety after postpartum parenting stress : A longitudinal, prospective study. *Canadial Journal of Psychiatry, 55*(4), 222-228.

Moon, H. J. (2005). Predictors of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5), 139-149.

Moon, K. J., & Oh, K. J. (1995).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maladjustment.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ivision of Clinical Psychology, 14*(1), 41-55.

Park, S. Y., Seo, S. J., & Bormstein, M. (2005). Mother-infant interaction styles associated with infant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5), 15-30.

Park, U. I. (1995).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6*(1), 113-132.

Park, Y. J. (2004). Mother's parenting stress, coping style and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Rosenberg, M. (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books.Inc.

Rosenberg, M. (1986).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books.Inc.

Rothbaum, F., & Weisz, J. R. (1994). Parental

caregiving and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in nonclinical samples :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55-74.

Saxon, T. F., Colombo, J., Robinson, E. L., & Frick, J. E. (2000). Dyadic interaction profiles in infancy and preschool intellige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8*(1), 9-25.

Seo, S. J. (2006). A study of infant developmental outcome with a sample of korea working mothers of infants in poverty : Implications for early intervention program.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3*(4), 253-260.

Shim, S. K., Byon, K. H., Park, J. H., Park, Y. M., & Kim, E. A. (2007). The mother's accuracy on the knowledge of infant's developmental level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2), 43-58.

Shin, J. Y., & Hwang, H. W. (2008). The effects of family incom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 parenting behavior. *Youth Welfare Study, 10*(3), 101-122.

Snow, C. E. (1989). *Understanding social interaction and language acquisition : Sentences are not enough. interaction in human development.* Hillsdale, NJ : Erlbaum.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Thompson, R. A. (2000). *Early experience and socialization.* In A. Kazdin(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Washington, DC., & New York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d Oxford University Press.

Tong, L., Shinohara, R., Sugisawa, Y., Tanaka, E., Maruyama, A., Sawada, Y., & Anme, T. (2009). Relationship of working mothers' parenting style and consistency to early childhood development :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1), 2067-2076.

Um, J. W. (2011). Predictable variables for parenting stress in korean mothers of infants : Focu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fant's characteristics,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marit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syst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Weaver, C. M., Shaw, D. S., Dishion, T. J., & Wilson, M. N. (2008). Parenting self-efficacy and problem behavior in children at high risk for early conduct problems : The mediating role of maternal depress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1,* 594-605.

Yang, M. S., & Cho, B. H. (2009). A study on knowledge and expectations of child development of mothers with an infant.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8*, 149-166.

Yoon, H. J., & Cho, B. H. (2004). Maternal knowledge of child-rear home environment.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1*(2), 59-88.

2013년 8월 29일 투고, 2013년 12월 8일 수정
2013년 12월 17일 채택